

jesamkwang.com

Design
Tonic

JSK communications

세상 모든 디자인은
(주)삼광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니다.

JSK communications

[300 SAMGWAANG COMMUNICATIONS CO., LTD]

서울시 용구 서빙구 76-4 4층/빌딩 402호 • 403호 / TEL 02-209-3700 / FAX 02-209-3708



한국문화연구원
한글문화연협회



2009
3

Vol. 200 March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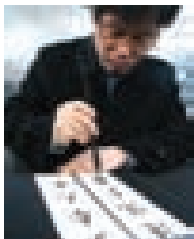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3 우리문화

통권 200호 March



표지 | 재천문화원 입춘첩 나눔행사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광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04	취임식 및 시설 방문
06	연합회 소식 I
	신임 임원 각오
16	연재 _ 문화원을 듣는다
20	문화원 이야기
24	구례문화원 남해문화원
28	문화원 탐방
	부안문화원
31	연합회 소식 II
	국악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34	기고
	역사의 애환이 양백(兩百)의 신(神)으로
37	현장취재
	아힘나 평화학교
40	사업소개
	2009 실버문화학교
44	야생초 이야기
48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2	우리문화 소식
54	신간소개
60	원장동정

칼럼

지역의 가치와 문학공간 명소화 전략



박덕규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소설가

1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에는 어떤 사연이 내재되기 마련이고, 그 사연은 또한 어떤 공간을 무대로 펼쳐져 있기 마련이다. 문학작품 속의 이 공간은 집, 학교, 사무실 등 실생활 공간일 수도 있고, 산, 들, 바다, 언덕 같은 자연적 공간일 수도 있으며, 마음속, 사람들 사이, 공중 등 미정형 공간일 수도 있다. 또한 순천의 바닷가 마을(김승옥의 <무진기행>), 평창의 봉평 장터(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보성의 벌교(조정래의 <태백산맥>), 부천의 원미동 거리(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처럼 실재했거나 실재하고 있는 장소가 작중에 구체적으로 재현된 곳도 있고, 고창의 바닷가 마을(서정주의 시편), 이북 지역의 산촌(김소월의 시편), 전라도 시골 마을(김영랑의 시편)처럼 작가의 거주 이력과 관련해 작품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 포괄적인 작품 무대도 있다.

문학작품의 무대 공간으로 제공된 실재의 장소 중에 어떤 곳은 실제로 그 장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곳이 적지 않다. 그런 공간은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실익을 제공하는 문화관광지 또는 문화상품으로 자리잡게 되기 마련이다. 문학작품에 제공된 실재하는 구체적인 공간은 그 문학작품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즈음 지역사회가 문학작품과 그것을 낳은 문학인을 주목해 그 공간을 명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데 있다.

2 문학공간을 지역의 의미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명소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손쉬운 것 중 하나는 문학공간의 표징화 작업이다. 예산이나 원형 보존 상태 등의 여건을 따져 재현이나 복원이 쉽지 않을 때 안내판이나 표징비를 세우는 정도가 되겠다. 부천의 변영로 생가 표징비나, 이즈음 문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보령의 이문구 <관촌수필> 기념비 등이 좋은 예다. 또는 문학관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작품 무대가 된 곳들에 표징비를 세운 순천의 김유정문학촌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인의 생가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보존 또는 복원하는 작업이다. 1985년 매입해서 보존, 보수 작업을 해온 강진의 김영랑 생가나 2005년 역시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복원 작업을 해온 진해의 김달진 생가 등이 좋은 예다.

그 다음으로 흔히 하는 일이 문학관 조성이다. 2009년 현재 건립이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문학관은 60개소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는 추리문학관(부

산), 한국기사문학관(담양), 농민문학관(영동), 한국문인인장박물관(예산) 등 특정 테마를 내세운 곳을 비롯해 근대 문학인 전반을 아울러 기념하는 문학의 집 서울(서울), 현대문학관(서울), 지역 전체의 문학을 다루는 경남문학관(진해), 김천문학관(김천), 강화문학관(인천) 등도 있으나 많은 경우 문학인과 문학작품의 문학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복원한 생가(옥천의 정지용문학관 등)나 안장된 묘지(거제의 청마문학관 등)와 함께 조성된 곳도 있고, 숙박이 가능한 상당 규모의 문인 집필실을 운영하는 사례(인제의 백담사만해마을, 원주의 토지문학관)도 있다. 이들 문학관은 주로 기념자료 전시, 생애 관련 영상물 상영, 문학 강좌, 낭송회, 세미나, 백일장, 기타 특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주로 해오면서 지역민의 참여와 외래 참관객의 방문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문학관에 다 테마파크 시설을 겸한 문학타운을 조성하는 지역도 있는데, 2009년 6월 개원 예정인 황순원문학촌 양평소나무마을(양평)이나 설계 중인 김주영 '객주' 문학타운 등이 좋은 예다.

김유정문학촌(춘천), 이효석문학관(평창), '토지' 최참판댁(하동의 평사리문학관) 등이 지역문화 행사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상당수의 외래 방문객을 맞는 등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되자 문학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실은 많은 문학관이 지원 예산에 의존해 예상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에 인주해 지역문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가 문학공간을 명소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문학관이 탄생하고 있지만, 문학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원스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문학관 조성의 초기 단계부터 문학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여서 주로는 건물 완공에만 초점을 맞춘 데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학관 조성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 또한 직접적인 조성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건립을 해놓고 정작 그 이후에 유효적절한 예산, 인력 투입을 하지 못해 운영에 애로를 겪게 된다. 결국 지역의 많은 문학관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전문성 부족, 지역 특성 무시 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획일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남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문학관 조성과 활용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양산되고 있는 무수한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가 이와 유사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대부분의 예산을 소비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어느 곳에서나 유사한 행사로 진행

되는 천편일률적인 지역문화축제 등에 대한 비판이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문학관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여러 문화시설이나 행사와 상생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문학관만의 독자적인 기획 운영으로 지역민은 물론이고 외래 참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재방문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지역 문화의 거점이자 새로운 문화의 생산지로 자리잡아야 한다.

4 문학관이 지역민을 비롯해 외래 방문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되려면 문학관의 조성 단계에서부터 우선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문학관이 문학작품과 문학인의 문학공간에서 배태되는 만큼 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문학작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력이 결여되면 문학신비화 경향이나 문학권력화 현상이 나타나 걸치레 기획이 남발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역 성향이 무시된 문학인만의 잔치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만다. 따라서 지역 문학관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 거주자와 출향인 또는 연고자 중에서 문학 전문가를 선발해서 활용하거나, 제휴나 용역의 형태로 전문 연구 집단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견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학관은 반드시 지역사회와 지역민과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성의 행정 주체기관인 지자체의 경건하고 굳건한 의도와 의지, 그리고 예산과 환경 조건 변화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력도 요청된다. 또한, 문학공간과 관련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관습을 문학관의 기획과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 다음으로, 위의, 문학적 전문성 유지와 지역적 특성과 정서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차원을 탄력적으로 연계해 이를 기획에 반영하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학과 지역을 두루 알고 이를 연계시키는 힘이 문학관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은 문학전문가일 수도 있고, 지역문화에 정통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활동한 행정전문가일 수도 있다. 문학관 조성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행정정책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문학관의 성패는 결국 이들 기획 행정 실무자들의 활약에 달려 있다.

*이 원고는 2008년 11월 2일 고창에서 열린 미당문학제 '미당 학술대회' 발제 원고를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7대 회장·임원 취임식 및 양로원 방문 문화나눔행사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월 5일 10시 30분부터 제27대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가졌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불안한 정세를 반영, 검소하게 취임식을 갖은 임원들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문화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모아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청운양로원을 방문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대문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왕언니 클럽의 가요, 한 피과천국악예술단의 한국신무용의 창작춤과 부채춤, 경기소리보존회의 경기민요 등을 함께 관람하였다. 60명의 청운양로원 어르신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조동순 청운양로원 원장의 환영인사 후,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인사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이외에도 김충용 종로구청장 축사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진 의원을 대신하여 조윤희 여사의 감사 말씀으로 더욱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후 성금전달이 있었으며 조동순 청운양로원장의 안내와 함께 양로원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연합회 임원과 내빈들은 공연 후 양로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3



4



5

1. 한외과천국악예술단의 한국신무용의 부채춤
2. 공연을 관람하는 임원과 어르신들
3. 관람을 끝내고 단체사진
4.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클럽 공연을 감상 중인 어르신들
5.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인사
6. 식사중인 임원들.
7. 조동순 청운양로원 원장의 환영인사
8. 감사인사를 전하는 조윤희 여사
9. 경기소리보존회의 경기민요
10. 축사를 하고 있는 김충용 증로구청장



10



9



8



7



6

연합회 소식 | 신임 임원 각오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

부회장 박인호 (은평문화원장)

월가(Wall Street)에서 불어 닥친 경제한파와 맞물렸던 지난겨울은 그 어느 해의 겨울보다 음산하고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춘분절기 새 봄을 맞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동토를 뚫고 새 생명을 터트리는 계절의 봄 기운이 우리문화가족 모두의 마음에도 훈훈하게 지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문화가족들에게 우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감성이 메마른 저도 문화가족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정서가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공중을 나는 새를 쳐다보면서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근로자를 대하면서 바라보고 느끼는 시각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저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제는 비판과 간섭보다는 세상을 향해 열린 생각, 긍정적인 신뢰를 전도받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작금 21세기를 합의하는 표현으로 '문화의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합니다. 문화복지정책, 문화서울 문화도시,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의 시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문화라는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기초하여 창조해낸 문화예술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도 래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국지자체에서 문화유적지 등 옛 모습 복원사업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기초하여 창조해낸 창작물 일체, 즉 우리를 삶 속에 큰 꿈을 꾸며, 지향하는 이상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과정, 그때 생성되는 아름다움을 자기 삶 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공유하는 공동체 성원들이 나누어 가꾸어 가는 언어와 습관, 생활양식의 독특한 정서체계 이런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서 지키고 키우며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역문화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과 지역 환경을 친환경으로 보존하며 향토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원설립추진에 부응하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 및 청소년들, 특히 65세 이상 실버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건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로 갖도록 할 것이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의 샘을 파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원이 명실 공히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미래를 탐구하는 요람으로, 시대상황에 대처하는 정책의 산실로 사명을 다하도록 스스로를 다지고자합니다.

선배동료제현들께서 추구하는 목적사업이겠습니까만 제가 당장 구현하고자하는 것도 지역에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오시며 유무형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전문문화재연구인사 및 문화예술단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한 제반사업의 공동추진인식을 확산시켜나가면서 갈등조정 및 주민화합의 용광로가 되도록 문화원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이 봄에 새롭게 다져봅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

부회장 오용원 (경기도지회장 / 평택문화원장)

많은 문화원장님들이 주문하신 신고와 격려를 잊지 않고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임기 내내 실천하도록 하겠다. 지방문화원이 모세혈관이라던 도지회는 동맥이며, 심장인 연합회로 피를 모아주고 다시 심장으로부터 새로운 피를 받아 지방문화원에 공급하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도내 시군 문화원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입이 되어 우리 경기도가 한국 문화원을 선도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문화원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도약의 기로에 선 우리 지방문화원과 도지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여러 원장님들과 힘을 모아 지방문화원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전한다.



모든 문화 가족의 작은 목소리도 담아 커다란 힘으로 발전할 것

부회장 박응진 (충청남도지회장 / 논산문화원장)

전국 문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7대 부회장에 취임하면서 지방 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7대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은 청운양로원을 방문하는 특별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리더(leader)는 어떤 조직 목표의 업무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갖고 모든 의사 과정에서 결정을 홀로 내리는 follow me식으로 구성원들과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러한 리더십(leadership) 스타일은 창의적이거나, 수평적 권한 관계에 익숙해진 조직원들에게는 불만족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제는 together식의 리더십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화 가족의 작은 목소리도 담아 커다란 힘으로 발전되는 연합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962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50년 반세기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사회 그리고 전국 문화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이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7대 최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224개 전국의 문화원 가족은 모두 힘을 모아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가 빛을 발하면 국민도 행복해진다

부회장 조재인 (여수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7대 최중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오며, 광역시도사회와 지방문화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 수십만의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행복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 문화는 언제나 살아있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며 삶의 내용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원이라 했습니다. 민족과 국민문화가 왕성히 자리며, 빛을 발하고 발전해갈 때 그 민족과 국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전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민족 또는 국민문화 간의 활발한 상호교섭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천가지로 당 연합회가 여타의 문화예술단체들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사회 그리고, 지방문화원 간의 문화 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문화원에서 시행해 오던 유사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우리들의 인지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각문화원간의 문화관련 정보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공동으로 협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문화원은 2008년 12월 1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위한 동백문화예술단을 출범 시켰습니다. 향후 지방문화원의 날에 참여시켜 그 경험과 정보를 우리연합회 회원들과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잘 보필해 연합회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그릇에 넣어 비빔 나물비빔밥처럼

부회장 **조훈래** (경상남도지회장 / 함안문화원장)

경료과 식견이 모자라는 처지이라 중앙 부회장 추천이 지역적 배려차원이면 타시도(경북, 울산, 부산)에서 선임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취임식에 이어 이사회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도지회장 자리는 회장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부회장 자리로 옮겨 앉고 보니 지회장을 쳐다보는 자리가 되어 무척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부회장의 임무는 연합회 정관 10조 2항에 의하면 회장을 보좌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분의 부회장이 제작기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연합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의견을 드리는 부회장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소 소신대로 소통을 통하여 단합하는 비빔밥 맛대화를 내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따로국밥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혼합하는 비빔밥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밥과 함께 빈찬으로 먹는 나물 맛도 좋지만 한 그릇에 넣어 비빔 나물비빔밥은 내생각과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 내 감정, 남의 마음과 내 마음을 어우러지게 비빔 소통의 비빔밥 그자체가 일품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원 회원 전체가 새 회장과 함께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활한 소통의 문화가 스스로 흐르게 하는 부회장이 되어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회장님을 보좌하도록 다짐해 봅니다.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계발보급임을 유념

이사 **김영섭** (서울시지회장 / 동대문문화원장)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血液)와 기(氣)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신체의 각 기관을 돌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건강하듯이 사회나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인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통과 인화의 주체가 곧 시민정신, 국민정신이며 문화가 곧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인체에 비유하면 경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해온 바 있는 지방문화원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내놓은 자식처럼 돼버렸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중소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위에서는 놀리고 밑에서는 치받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새로운 임원진으로 재충전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의 224개 문화원과 힘을 합쳐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방문화원의 핵심기능은 무엇보다도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계발보급임을 유념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신념으로 각문화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촉매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이사 **이규상** (부산광역시지회장)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은 물론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과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지역문화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첨병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원 혼자만의 고군분투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연합회와 각 지회 및 지방문화원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정보 교환이 선행 되어 분산된 문화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상승효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장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로서의 역할을 잘 활용하여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버세대의 문화 역량을 발굴·개발하여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유도하는 실버문화학교와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향토사대중화사업,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인 다문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선의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촉매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사 **정명표** (대구광역시지회장 / 대구서구문화원장)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땀방울로 이루어진 단체가 바로 우리 '문화원'입니다. 이렇게나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자긍심을 갖고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는 비대해지고 유택해진지 몰라도 그에 따라 문화나 삶의 질의 불균형이 놓여진 지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지역마다 문화를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씨알지언정 그곳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가꾸다보면 단단한 나무로 키워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들의 문화의 씨앗을 틔워봅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이사 **허문명** (인천광역시지회장 / 부평문화원장)

흔히 우리 문화원에 대한 고정관념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전통적인 보수단체로 인식되어져오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 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지역의 원로들이 문화원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이 고착되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과 틀 속에서 하루빨리 뛰쳐 나와야 할 때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요즘의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함께 새롭게 다가오는 현대 문화의 보급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라는 날개와 현대문화예술이라는 양 날개로 날아야 멀리 오래 날을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문화원의 신선한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줘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09년 이사진 출범에 부친다

이사 **문병란** (광주광역시지회장)

경제 불황의 암운이 드리운 지구촌, 그러나 다시 <희망가> 부르며 물질보다 더 귀한 문화와 새로운 정신주의, 부활을 꿈꾸어 본다. 온고지신, 낡은 것을 새롭게 익혀 묵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듯 전통과 창조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장 한국적인 곳에서 세계문화의 싹을 키우자 다짐해 본다. 경제의 낙후보다 더욱 큰 비극이 문화의 뿌리를 잃는 데 있음을 명심하자.



문화원이 문화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노력

이사 **조성남** (대전광역시지회장 / 대전중구문화원장)

문화원이야말로 문화단체로 참 긴 시간을 보내왔다. 질곡도 있었으나 그와 같이 해 함께 기뻐하며 경축할 일도 많았다. 긴 역사 동안 자립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문화원의 저력을 믿고 있다. 더욱 열심히 뛰어아차지 하는 마음이 앞선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원이 그 지역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금씩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전국 문화원이 문화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저 열심히 앞을 보며 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화향유권의 폭을 넓혀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문화의 주체임을 알고 더욱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설 수 없는 길

이사 **이병우** (울산광역시지회장 / 울산북구문화원장)

기축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임기를 맞게 되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원으로서 존경하는 전국의 문화원 가족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곤궁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과 전통은 어찌하면 그 자취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아주 특별한 것' 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비록 우리의 삶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핏줄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한 우리 민족과 겨레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원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높고 무겁지만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우리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앞길에 큰 스광이 비추시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며

이사 **이대근** (강원도지회장 / 춘천문화원장)

문화의 세기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참으로 많은 질고를 겪으면서도 곳곳이 자리를 지켰던 문화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발굴 보존하며 현재에 향유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힘이 필요한 줄 압니다. 지방문화원의 힘을 합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더욱 발전해나가기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이끌고 가는 나라

이사 장현석 (충청북도지회장 / 청주문화원장)

불황 경제가 배출하는 탄산가스의 위력이 견뎌내기 힘들 만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대지에 봄눈은 트는데,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야 할 생활의 활력은 아직도 얼음장처럼 갇혀 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믐밤 같은 오늘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꿈은 있다. 그믐밤이 지나고 나면 새날 새 아침이 온다. 그렇다고 그저 와 주지는 않는다. 일어나야 아맞힐 채비를 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캄캄한 그믐밤과 같다면, 이를 밝혀 줄 힘은 문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문화의 등불을 밝혀 오늘의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문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가는 동력으로써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경제의 현기증을 앓고 있는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는 문화다!'를 외치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한하게 잠복되어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 산업화하는 노력이 시급한 때다. 그럼으로써 정치의 손수건이 닳아주지 못한 민중의 눈물을 문화의 손수건이 닳아줘야 한다. 사회의 안전망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민중의 위협을 문화의 가로등이 지켜줘야 한다. 경제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닻을 내려 정박해 있는 지금은 문화가 민중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으로, 위협을 지켜주는 가로등으로, 굶은 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 문화와 문화원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민중의 웃이오, 민중의 식료품이오, 민중의 집이 되어야 한다. 문화 허점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위성 기관이 아니라, 시민을 이끌고 가는, 지역 문화를 발굴해서 법고창신(法故創新)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의 성당이 되어야 한다. 의존의 구각을 벗고 튼튼하게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문화원과 관계하고 있는 이상 문화원의 새로운 진보를 위해 거듭거듭 사고하면서 백방으로 뛰고 시민과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가 이끌고 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이 문화원에 대한 나의 포부다.



각 지역문화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도록

이사 이복웅 (전라북도지회장 / 군산문화원장)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를 아우르고 지역문화 창달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문화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 마련에 힘을 쓰고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 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 사업, 지역축제 개발 육성사업,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지역환경 보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도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문화원의 사기진작과 위상정립을 위해 대책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한뜻을 모으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원이 우리의 향토문화 근간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각 지역 특색에 걸 맞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문화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도록 함께 입을 모아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의 문화리더로서 활동

이사 정원강 (전라남도지회장 / 함평문화원장)

사랑하는 문화원 가족여러분!

그동안 한국문화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이어온 산실이었습니다.

21세기 한국문화원은 그 위상과 역할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원 종사자들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문해 봅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가족여러분!

한국문화원이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의 문화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의 파수꾼이 됩시다.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으로

이사 김중우 (경상북도지회장)

문화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에는 입고 먹는 것이 중요해 그저 많이 벌어서 아이들 잘 키우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1차적인 문제보다도 문화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까지 경제를 일으킨 건 우리 모두의 각자의 힘이고 저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문화단체의 일원으로서 그 지극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문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그 앞에 우리 문화원이 서고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문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문화를 잘 기꾸어 나가시다. 그것이 우리 문화원의 저력입니다.



높푸른 창공으로 비상하기를...

이사 한공익 (제주도지회장)

3월이면 생각나는 단어들 있습니다. 입춘과 더불어 생명과 출발 그리고 희망 등등입니다. 자연도 새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사람들도 코흘리개를 갓 벗어난 새내기들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상이탑의 문을 들어서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눈동자엔 희망의 빛이 반짝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높푸른 창공으로 비상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를 3년 동안 이끌게 될 최중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도 새로운 다짐으로 한국문화는 물론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비상을 해야겠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동네 음식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일터에서 노동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경제가 멧들다 지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운영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극복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때에 국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합회나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추후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영진 실타래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한 올 한 올 풀어야 되듯이 어려운 과제들과 곤혹스런 난국을 차분한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안을 미련하면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화운동만이 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 문화를 읽더라도

이사 김 종 (광주서구문화원장)

문화(文化)의 힘은 매력이고 감동이다. 그 매력과 감동은 그 감동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먼 곳으로 번져간다.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가 퍼문을 타고 멀리 번져 가듯이.

지난해 한 중일 일간지의 특집 기사에서 21세기 최대 화두로 저출산, 고령화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따른 동북아의 분쟁이 갈수록 첨예화 되리라 내다봤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음을 예고한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문화적 장치가 절실하다.

대영제국은 쇠락했어도 그들의 언어인 영어는 지구촌의 패권 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용광로와 같은 문화 저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거침없이 흐르는 시대의 변화에도 인간은 가장 느리게 진화하는 종이다. 가까운 이웃이나 동네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장간이 문화원이다. 한 술의 밥을 먹는 식구 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화운동과 그 식구들을 늘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덧붙이자. 해외문화원과의 교류와 소통, 지방문화원의 자기 색깔 갖기, 전통·현대문화의 적절한 조화와 응용,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된 문화격차 줄이기 등으로 매력과 감동이 커지는 문화를 견인하는 연합회를 목표로하자.



서로 믿고 도우며 사랑하는 일

이사 **한군수** (대전유성문화원장)

지회장을 하다가 2년만에 새로 이사가 되었습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전보다 더욱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문화를 이 속에 담을지 포부가 새롭습니다. 문화원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단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를 쇄신하여 새로운 문화장르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이 개발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우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옛것을 살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을 도와 여러 일을 더 많이 벌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을 일은 서로 믿고 도우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웃음도 피어나고 문화도 피어나고 연합회와 지방 문화원의 발전이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족으로 산다는 것

이사 **정정희** (당진문화원장)

반세기 넘게 전통문화의 현장을 지켜온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몸담아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세간의 일이라는 게 영고성쇠(榮枯盛衰)의 유전인 것을, 그간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견재한 조직으로 위상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지방문화원장님들과 문화가족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적 변화를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하는 격동의 문화현장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임원진들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비전을 펼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문화의 최전선을 지키는 문화경영자로서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문화 복지 구현에 힘쓰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더욱 건실한 단체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 힘이 넘치는 나라로

이사 **김복현** (익산문화원장)

우리 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기하기 위한 '우리문화'에 한국문화원 임원으로 재추대됨에 따른 한마디의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 문화원장으로서의 묵묵히 지역 문화에 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어찌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굳이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부자의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센 나라보다도 문화의 힘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떠한 외침에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흥망성쇠는 있었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바탕에는 어느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튼튼한 뿌리(우리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문화원이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민족은 슬한 외침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어떤 나라에 고통을 준적도 없고 어느 나라의 문화를 짓밟아 본적이 없는 민족이다. 여기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되 새겨 볼직하다. "富力은 우리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이렇듯 문화가 지니는 힘과 문화의 중요성은 한 나라를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힘이다. 이러한 문화의 힘에 근간이 되는 문화원의 역할은 지역문화의 뿌리 역할을 해야 하기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늘 함께할 지라도 소명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문화원장들의 확고한 문화 창달의 의지가 있을 때 지방문화의 힘은 막강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미약한 힘이지만 다소의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원직에 임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원의 위상 향상되기를

이사 권창호 (포항문화원장)

이사의 입장에서 포부나 각오를 말하리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저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를 신입회장 단에게 드러봅니다. 우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위상이 높이 자리매김하도록 문화원 실력 향상이 과시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야 행정각료들과 국회의원 등이 문화원을 한국정신문화 메카로 높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지방문화원의 위상도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문화원 조직의 막대함을 과시하는 전국행사의 규모 있는 기획이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개최하여 역동하는 문화원의 파워형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원 행사에는 문화원장부터 모든 문화가족이 반드시 한복을 입도록 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한복 입는 날을 정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문화강국을 기대하면서

이사 박수호 (군위문화원장)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은 국력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지정학적 장애요소들은 극복하고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이어 왔다.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우리 민족이 받아왔지만 문화적 지배는 불가능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끈질긴 저항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왔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를 손쉽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국민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다. 따라서 국민이 건강해야만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세계는 문화강국이 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국을 홍보한다. TV의 여러 채널을 통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이 소개되고 있으며 관광을 목적으로 한 홍보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타국을 통하여 그렇게 손을 쓰고 있는 지금 금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구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칭하면서 이런저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도 경제 강국, 선진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로 한 국가의 문화는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일반사회단체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예산의 확보이다. 지방문화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그 지방의 단체장에 의하여 많고 적음이 가려진다. 이라고서야 지역문화원이 소신있게 사업이 현명하게 이루어지겠는가! 1년 내내 타의에 의하여 손을 놓고 있는 문화원이 있는가 하면 일이 많아 많은 일을 하는 곳도 있다. 지역문화원이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문화 정책이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도대체 문화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말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이 배정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래가 보여 지게 될 것이다.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이사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의 원천인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 지방문화원의 지상과제이며 문화대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 나가는 문화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이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노력으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방문화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실공히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수호자입니다.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 문화를 지켜 나가는 첨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더욱 밀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요람으로 그 위상을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선현들의 삶의 지혜와 애환이 담긴 소중한 향토문화는 우리 지역의 뿌리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원으로

감사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한 조직이 구상하고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자기책임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인적 뒷받침이 충족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원이란 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도 아닌 울긋나긋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봉사단체인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려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달려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이 되면서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시군 단위 문화원이 균형발전이 되어야만 문화원이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 문화원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일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립도가 군보다 높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인구도 넘쳐나고 왕성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군 단위 문화원은 우선 재정지원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립도가 밑바닥에 멈춰있고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문화연구가 함께 감소되고 있어 문화원의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군 단위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열심히 문화원 경영을 하고자하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을 배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는 발굴하고,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지역의 문화를 밖으로 알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다수 문화원들이 매년 국내 문화탐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탐방으로만 그치지 말고 문화원과 문화원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원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문화교류 활동을 적극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센터로 발돋움하길

감사 **정경진** (나주문화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며, 지방문화원 역시 각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원이 동일한 사업 형태를 가질 수도 없고, 동일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이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문화원과 함께 하는 사업을 만들어가기가 힘든 현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모래알처럼 단단하지만 전체 문화원이 하나로 녹아나지 않고 각기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모래알을 녹여 하나로 만드는 도가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재

화

를

원

듣

다

문화(文化), 우리 삶의 원형질(原形質)



정경진 나주문화원장

문화원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출발을 말해야 한다. 문화원의 태동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현대사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 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문화원이 각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그 이전에 미국문화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원은 그 태생이 자생적이지 못하였고, 다시 말하자면 반문화적이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문화원은 당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뉴스, 정부의 홍보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였다. 사실 그 시기에 그 사업이 아니었다면 문화원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만큼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와 함께 자생적으로 문화를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어쩌면 그렇게라도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그 이후로도 문화원 활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랜 동안 이어졌다.

1961년 3월 15일에 창립한 나주문화원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선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가 오래된 문화원은 아직까지도 영화상영일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랬던 문화원이 20세기의 끝자락인 1994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인해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여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역사회의 문화적 센터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그 나라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2005년 정기총회에서 나주문화원은 정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나주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였고, 2008년 11월 21일 제4회 나주문화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제4회 문화원의 날 캐치프레이즈는 “문화, 후손에게 전하는 삶의 원형질” 이라 결정하였다.

‘원형질’ 이란 생물학적으로는 생명활동의 기초를 말함이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소속된 지역사회, 국가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뿌리 깊은 정신세계를 말한다. 결국 문화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메리카인디언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00년도 채 안 되는 미국의 역사는 수 천 년의 뿌리를 가진 아메리카인디언을 말할함으로써 세워진 것이다. 지금 어느 누가 아메리카인디언의 뿌리를 말할 수 있고, 그 문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인디언의 후손이라고 해도 미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포함된 오래된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인디언 복장과 같은 추억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곳곳하게 우리 말과 글, 우리 문화를 지켜온 선조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였던 독립투사 못지않게 이 땅에 남아 구차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우리 문화의 작은 부분을 지켜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결정하였다. 또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강토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슬기가 지금껏 우리를 지탱해준 정신적 지주가 되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우리 삶을 이루는 원형질이요, 또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줄 소중한 원형질인 것이다.

니주(羅州)는 전라도(全羅道)의 니주다. 전주와 니주의 지명에서 전라도는 유래한다. 니주는 구석기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는 곳이다.

구석기의 패총, 신석기 유물, 고인돌, 우리나라의 묘제 중에서 가장 독특한 대형옹관고분, 후삼국 쟁패의 한 가운데에서 고려에 의한 삼국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주,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주와 함께 전라도의 중심고를 역할을 하였으며, 훈민정음 창제의 최고 역할을 하였던 신숙주, 풍류남아 백호 임제, 임진왜란 창의 사 김천일 선생 등 수많은 인물이 태어난 곳이다.

옹관고분은 나무나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꺼운 대형 항아리를 구워서 관으로 사용한 고분이다. 6세기 중반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사용하였던 묘제인 옹관고분에서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환두대도 등의 부장품이 나와서 삼국시대에 가야연맹체를 끼워 넣어야 했던 낙동강 유역과 마찬가지로, 영산강 유역 역시 고대국가 바로 전 단계까지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시기에 항아리를 굽는 일은 지금의 광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각해보시라.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2m 가까운 큰 키에 3~4cm의 두께를 가진 대형 항아리를 만들고 있는 고대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대형옹관과 함께 고분마다 출토되고 있는 제수용 토기를 제작했던 장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성(燒成)하던 가마터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굴이 항상 진행 중인 곳이 니주다. 공사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발굴장이 먼저 들어선다.

이로 인해 니주는 전국 최초로 먼 지역에 국립박물관이 건립되는 곳이 될 전망이다. 니주시 반남면에 들어서는 국립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거의 모든 유물을 전시하고 보관할 박물관으로 계획 중이다.

니주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계획이 서자 니주문화원은 반남면민들과 2008년 12월 한 달 동안 박물관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2007년부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니주문화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남면민들과 니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였으며,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콘텐츠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니주문화원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국립박물관이 들어섰을 때 지역사회와 유리된 아카데미한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유니크한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건립되었던 많은 국립박물관이 지역주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니주시 반남면에 건립되는 국립박물관은 건립 이전부터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들이 박물관의 주인이 되고 관람하려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박물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니주문

**전통적인 우리 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만
을 우리 것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화원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박물관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건립 이후에도 직접 간접으로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가장 늦게 건립되는 박물관이지만 가장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박물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나주의 역사와 국립박물관, 그리고 나주문화원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지만, 그 예가 아니라도 지방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지역사회의 문화행사와 문화사업을 조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문화’를 ‘우리 삶의 원형질’이라 할 때,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정책의 수립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원형질을 잘 다듬는 일일 것이다. 작은 지역사회라고 하지만, 문화원이 문화원의 사업에만 함몰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전체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문화를 지키고, 우리 손이 아니면 사라져갈 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맥을 잇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처럼 문화적 변화가 심한 시대는 없었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가히 국경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시대다. 그러나 ‘비디오아트’를 창시한 백남준이 언젠가 “한국에 비빔밥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한 유명한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우리 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만을 우리 것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옛날 오일장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팔았던 상행위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다. 장날은 장을 돌아다니는 장사꾼들로부터 다른 마을의 소식을 듣는 정보교환의 장이었으며, 문화와 예술 공연이 어우러지는 말 그대로 마당이였다.

지역사회에서 바로 그 마당을 펼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마당에서 펼쳐지는 놀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당을 펼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 마당을 펼치기 위해 조직하는 네트워킹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가. 바로 생생변천하는 생명력을 가진 우리 문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문화원을 위하여….

문화원 이야기

구례문화원

우리 고장의 성씨와 내력 봉성장씨(구례장씨)에 관해

우리나라에 성씨가 유입된 시기

성씨는 본래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거나 혈연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로써,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일 혈연 집단의 한 명칭이다.

성(姓)과 씨(氏)는 역사상 함께 붙어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관과 함께 사용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동일한 성과 구별된다. 성씨는 발생한 이래 계속 분화하여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며 동성(同姓)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또는 부(父)의 성을 따르기도 하며, 모(母)의 성을 따르기도 한다.

씨는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였기에 귀한 사람은 씨가 있었으나 천한 사람은 씨가 없고 이름만 있었다. 중국의 경우 하(夏), 은(殷), 주(周) 시대부터 제후들이 성을 사용하였다. 그 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와서 성씨가 합쳐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유한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성명(姓名), 즉 이름을 살펴보면 성(姓)과 본관(本貫)은 가문(家門)을, 명(名) 즉 이름은 가문(家門)과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個人)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이름만 쓰이다가 차츰 본(本)이 쓰였고, 이윽고 성(姓)이 사용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姓)이 사용된 것은 주몽



(朱夢)이 국호를 고구려(高句麗)라고 하면서 성을 고(高)씨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성명문화는 “이름” 뿐이었으며, 삼국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을파소, 온달, 개소문, 을지문덕, 흑치상지 등 우리말 이름이 널리 쓰였다. 한편 성씨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였다.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합했다고는 하지만 개국 초기에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각 지방은 신라 말기에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반란이 빈번하던 혼란기라, 각 지방을 근거로 독자적인 기반을 닦고 성장한 토착세력이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농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을 장악했던 호족(豪族)들에게 지배되고 있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 이들 호족세력을 견제하고 회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포섭할 목적으로 중앙과 연결된 지방 호족들에게 사성(賜姓)을 주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의 성씨 중 상당수는 고려 개국공신의 후예들이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우리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크게 첫째, 고려 초 사성(賜姓)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둘째,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셋째, 고려 초 사성(賜姓) 등 셋으로 나누면서, 대부분 셋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밖에 이들 개국공신들 외에도 새 왕조에 협력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향리의 호장(戶長)들에게 벼슬을 주어 강제로 귀속시켰던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공신이나 지방 호족들은 대개 성을 하사받아 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씨가 본격적으로 일반화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고려 광종때 후주(後周)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雙冀)의 제안으로 시작된 과거제도가 정착되어 가던 과정에서 성씨가 널리 보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응시지는 성과 본관(출신지)을 필히 밝혀야만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과거 응시의 자격이 있었던 평민 이상의 신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천민층에 속해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성이 없었다.

아무튼 고려시대는 성씨가 널리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되고 양민들에게까지 확대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조선 건국 후에도 고려시대의 정책이 계승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 노비를 비롯한 천민 계층이 전체 인구의 대략 절반을 차지한 무성층(無姓層)이었다. 이러한 천민층이 새로이 성씨를 획득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16세기말)부터였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조선 후기에 와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신분의 이동이 생겨났다. 즉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천민층이 평민 신분으로 올라서거나 몰락한 양반의 성을 사기도 하는 등 양민 이상만 가질 수 있었던 성을 점차 노비들까지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종래의 신분 계급이 타파됨으로써 성의 대중화가 촉진되었으며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성을 가질 수 없었던 계층이 새로 성을 갖게 되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청에서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거나 노비의 경우 상전을 따르거나 인구가 많은 김·이·박 같은 대성을 소망하여 그 성을 정함으로써 종전의 대성들은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세종 때에 편찬된 최초의 성씨관계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50여 개의 성을 기록하고 있고, 세종 17년(1486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전의 소멸된 성씨를 포함한 277성이 되었다.

또한 영조 때 영의정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이, 고종 때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삼국시대 이후의 성이 총망라된 496성이 수록되었다.

한편 우리 고장의 성씨 유입 및 내력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하여 소견을 몇자 적어 보았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고씨,장씨,박씨의 3대 성씨가 최초로 유입 되었다고 하는 설들이 있었는데, 어떤 성씨가 최초인가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성씨중 유일하게 구례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 봉성장씨(구례장씨)의 유래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다.

봉성장씨의 시조

시조 장악(張岳)은 도시조(인동장씨의 시조) 태사충헌공(太師忠獻公) 장정필(張貞弼)의 8세손으로 고려 인종조에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그런데 공이 고희의 나이로 조정에 입궐할 때 마다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였다. 왕이 그 연유를 묻자 장악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은 즉시 공에게 봉성(鳳城:구례의 옛 이름)을



식읍(食邑)으로 내리고 봉성군(鳳城君)에 봉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구례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시조의 묘소는 구례읍 백련리에 있다

한편 봉성장씨의 시조인 장악이 문척면 죽연(竹淵)마을에 최초로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장악의 조상 중 누가 무슨 연유로 언제부터 구례에 살게 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봉성장씨의 집성촌으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으로 나타난다. 충청북도 지역으로는 옥천군 이

원면 일원과 영동군 학산면 일원, 영동군 양강면 일원, 보은군 마노면 일원 등이고, 충청남도 지역으로는 금산군 금산읍 일원과 금산군 부리면 일원 등이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은 무주군 안성면 일원과 진안군 상전면 일원 등이고, 전라남도 지역은 구례군 문척면 일원 등에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참조문헌 장씨 종사실감
구례장씨 가문의 역사와 인물
구례군지

*이 원고는 2008년 구례문화 제22집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1. 봉성 장씨의 묘, 구례읍 백련리
2. 구례읍 백련리 봉성 장씨 시묘 입구



김동기 구례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이야기

남해문화원

남해문화원 다문화사업을 하며

봄내음 나는 우리 남해의 진짜 아줌마들

남해문화원의 다문화 사업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 길고 차가운 겨울의 옷을 벗어 놓고 시골 아낙네처럼 수다를 떨며 마실가는 발걸음이 즐거워 콧노래가 절로 난다.

몇 년 동안 결혼이주여성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 항상 감사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한일이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보면 허전한 마음이 앞선다. 사랑방에 모여 앉아 남편, 아이, 시부모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마음편한 언니를 만나서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이주여성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 군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우리 문화원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글교육, 아동양육교육 등 기초생활조사부터 일자리 교육까지 추진하며 문화원 특유의 친화력으로 문화예술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원동기면허시험이었는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며칠을 같이 공부하고 안전교육 건강검진 운전연습을 하고 경찰아저씨들과 함께 한명씩 합격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덕분에 요즘은 이주여성들이 원동기를 타고 공부하러 오고 시장도 가고 문화원에도 정말 자주 온다. 그리고 '사투리 말하기 대회'에 출전한 판티화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남해 사투리로 표현해냈는데 정말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짜던지 야무지게 매매 단단히 키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베트남 새댁이 시어머니와 남편사이에서 사투리 때문에 겪게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었다.

문화원 회원들과 이주여성간의 '친정엄마맺기'

우리 문화원 회원들과 이주여성간의 '친정엄마맺기' 사업을 통하여 결혼식에 문화원



하희숙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회원들이 친절업마로 참석해 화속도 밝히고 폐백도 받았다. 어버이날과 명절 때는 친정나들이를 하는 이주여성들, 또한 아이에게 줄 미역을 사고 기저귀를 준비해 산모 도우미를 자청해 주는 '친정업마' 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들이 조금 줄었다고 한다. 낯선 땅에 시집와서 하루아침에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이주여성들을 맞이한 가족들은 조금 중이 나서 뛰든지 빨리 배우기를 바란다. 발음 하나하나부터 음식문화의 차이점 그리고 이웃에서 바라보는 시선까지 곱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불쌍하다, 안됐다' 라는 동정심은 오히려 그녀들을 더 힘들게 할 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그저 지켜봐주자는 거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여성이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공부를 하고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성이 절반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족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감금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데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왕왕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있다. 이런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녀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고민해보고 접근할 때가 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막상 현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상반될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을 다른 부처에서 하다 보니 중복이 되어 예산낭비, 퍼주기식 프로그램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없다 보니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단체로 짧은 시간 내에 얼굴만 한번 보고 결혼을 하는 속전속결로 이뤄지니 상대방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결혼을 하겠는가?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부인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고는 괴로워했던 남편, 반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남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실망감으로 울던 이주여성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웠다.

그녀들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시집오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돈 많이 벌어서 베트남에 보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 놓고 싶은 것. 셋째로는 2세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돈 많이 벌고 아이도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한국어가 서툴러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돈은 정말 벌기 어렵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고 실망을 하게 되어 자꾸만 의욕을 상실하고 소심해져가는 이주여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소한 행복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요즘 우리 군에는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출산한 자녀들이라 하니 향후 5, 6년 후 남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절반이 이주여성들의 자녀라면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와 정부부처에서 그에 맞는 교육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고민이 될지 알게 되었다. 보수적인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음식 만들기가 겁이 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녀들이 놀림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아이들이 커 가는데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싶지만 막상 보육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이라도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이주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단순노동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녀들에게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다. 우리문화원 사랑방에서 이주여성들이 손수 잔목도리를 독거노인 시설에 전달할 때 보여줬던 그녀들의 행복한 미소는 잊을 수가 없다. 자신들도 힘든 한



국생활이지만 쓸쓸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며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이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길

그들이 처음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먼 타국에 시집와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무작정 한국 것만 배우게 하고 가족들이 그녀들의 나라에 대한 풍습이나 관습은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얼마나 알고 이해해주었는가. 위장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구타와 멸시, 학대로 인해 가출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 한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웃사람들이 이주여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녀들이 말하는 한국의 결혼생활은 남편과 가사일도 분담하고 아이를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라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휴일에는 아이랑 놀아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상한 모습의 남편이면 좋겠다고 한다. 혹시라도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다. 더 바라는 것도 없다. 그저 한국 사람과 똑같다.

지난달에 베트남에 가게 된 주영이 어머니는 한국에 도착하면서 공항에서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저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면서 전화가 왔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주영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주여성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모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녀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습터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사람 사는 훈훈함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그녀들을 안아 주었으면 한다.

문화원 탐방

바닷바람과 산의 햇볕을 닮은 문화원, 부안

부안문화원

봄이 오는 부안은 차다.
군산시와 바다로 접해 있는 부안은
산도 바다도 품은 고장이란다.
부안의 문화원을 찾았다.





부안의 명당에 자리 잡은 부안문화원

전국 어디 문화원이 안 그러겠느냐만 부안문화원 원사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접근이 용이하고 뒤로는 매창공원과 접해 있다. 매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이 공원에는 아름다운 시비와 시시때때로 무르익는 자연이 있다. 그래서인지 문화원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때 따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다. 어떤 조명보다 더 좋은 자연광이 있고 신선한 바람이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봐도 눈에 잘 띄는 문화원인 데다 공원까지 함께 있어 부안군민들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이곳을 찾게 된다고. 문화원의 쾌적함이 곧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문화원사의 창도 그렇다. 제법 큰 창이 벽을 따라나 있어 여름이면 겨울이면 일조량이 높는데 이 정도면 전국에서 햇볕이 많이 드는 문화원으로 일등 아닐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다고도 하지만 높은 일조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안의 자랑 매창문화제

부안문화원의 가장 큰 행사는 뭐니뭐니해도 매창문화제다. 조선시대 시인인 매창은 시문, 가무, 거문고에 능하였고 인품 또한 뛰어난 부안이 낳은 시인이다. 매창은 불우한 짧은 생애를 살면서 당대의 문장가들과 사귀며 수백편의 주옥같은 시가를 남겨, 죽은 뒤에는 고을의 현리들이 그의 시집 '매창집'을 출간하여 주었고, 근래에 들어 매창을 찾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하고, 매창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활발하여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저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매창의 뜻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매년 부안문화원에서 열리는 문화제인 매창문화제는 초·중·고 학생들의 백일장과 사생대회, 시화전, 학술경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공원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때는 매창공원이 아이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 없다.

“어떻게 보면 제 이력 때문인지도 몰라요. 3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이 일대의 웅만한 사람들은 거의 제 제자거나 그들의 학부모거나 하지요. 그런 점이 문화원에서 이점으로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오래 본 선생이니까 오는 거죠. 그건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문화원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못한 저의 작은





4

1. 부안문화원 전경
2. 2008 종합작품전시회 테이프 커팅
3. 김원철 부안문화원장
4. 매창백일장, 사생 대회
5. 문화체험행사장을 찾은 김춘진 국회의원
6. 강화도 연미정 탐방
7. 찾아가는 문화활동, 가야금 병창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생활 교직에 몸담았던 김원철 원장은 사실 이런 행사는 어떻게 보면 쉬이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상대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사소한 흔적들이 모두 몸에 남아 이런 행사를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김원장이다.

부안의 욕심꾸러기 부안문화원

부안의 1년 살림을 꾸려나가자니 숨이 찬다. 이 작은 문화원에서 할 일이 뭐가 그리 많은지 봄이면 대표적으로 매창문화제,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 가을에 석정문학제 지방 곳곳을 돌며 문화원 회원 문화답사까지 기본적인 문화강좌에서부터 이런 크고 작은 행사까지 늘 정신이 없다. 그런데도 부안문화원은 책 욕심까지도 많다. 어느 문화원인들 그 지역에 관한 책이 없으랴만은 부안은 더욱 그렇다. 매창집부터 시작해 석정시집, 고인들 안내서, 문중의 일기를 해석한 유복래산 일기, 우리가 알아야할 생활예절, 조선왕조실록의 부안인물사 등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숨이 찰 정도이다.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또 보존하는데 있어 도서의 형태로 만드는 자료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일까. 부안문화원은 매년 책 만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안에 민속박물관을 만드는 것이예요. 임기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는 중입니다. 부안에 민속자료가 정말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고 대대로 기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부안 문중의 고문서를 번역하는 작업이 그와 같은 맥락일 수 있겠죠.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어느새 민속박물관에 들어갈 자료들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셈이죠.”
과거를 들여다보며 부안문화원이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안의 미래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요즘 게 얼마나 좋은데 저렇게 과거의 문화재들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곧 올 부안의 미래에는 분명히 있다. 부안문화원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부안의 미래가.



5



6



7

국악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포항 공연

가족이 되다 그리고 끌어안다

공연장 객석 내 불이 꺼지고 무대의 조명이 밝아진다.
어느 공연장 같으면 숨 실 틈 없이 적막함이 흐를 때다.
그런데 이 공연 뭔가 이상하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모자라 갓난아이 울음소리도
간혹 흘러 나온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공연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도대체 무슨 공연이길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가득 모인 걸까.



/// 무대 위의 세 여자

소란 속에 등장한 이영태 도장. 그의 결속한 입담에 장내가 아연 조용해진다. 시끄럽던 꼬맹이들도 무슨 소리인가 눈을 말뚱말뚱 뜨고 그를 보느라 정신없다. 재치 있는 그의 말에 까르르 웃음보가 터지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객석도 한바탕 같이 웃는다.

이윽고 밝아진 무대는 손님 맛을 준비로 분주한 한 농가다. 세 명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 곧 이상한 점을 알게 된다. 며느리들의 걸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한 농가의 아낙들인데 그 말투며 얼굴생김이 낯설다. 극을 쫓아가다 보니 이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란다.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의 움직임을 쫓다보면 그 익살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터지기 일췌지만 극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들의 애환에 객석들은 숨을 죽이게 된다.

/// 어디에서 오셨나요?

각 나라의 전통음악이 나올 때면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리거나 눈물을 찍어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가족됨 에 이야기하는 이들의 소망은 크지 않다. 그저 자신들이 이 고장의 필리택으로, 연변택으로, 베트남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름을 붙여 부르는 우리의 풍습이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이름이 되지만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에게 보내지는 멸시와, 사람들의 수근거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고부갈등... 이들은 그저 한국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향을 그리는 한 사람이라고 외친다.





1.2.4.5 공연 장면
 3. 공연이 끝나고 일일이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공연단
 6. 공연을 보는 아이들

공연의 막바지에 이르러 무대 위의 머느리들이 객석을 향해 질문을 한다. 어디에서 왔냐고, 객석에서는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무대 위의 머느리처럼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자 무대 위에서 내려온 배우들이 이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부둥켜안으며 반갑다고 한다. 그 사소한 스킨십에 객석이 온통 소란이다. 정말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 바로 지금 현재 여기의 이야기

공연 전 객석의 술렁거림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혹은 친구와 혹은 자신의 아이와 손을 잡고 온 포항의 이주여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연장에 와 어떤 마음으로 이 공연을 관람했는지 그들의 박수와 웃음, 울음을 보며 감히 짐작할 따름이었다.

이번 러브 인 아시아는 국악뮤지컬로 다문화가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로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 제작한 것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서울에 이어 포항에서 그 두 번째 공연을 올린 것. '러브 인 아시아'는 공연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이 땅의 이야기이다. 바로 우리 이웃의, 가족의 이야기다.

이번 공연을 보았던 이주여성들, 그들의 가족들, 혹은 그들의 이웃들이 공연장을 나서며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그들이 웃고 울었던 그 노래가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이 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함께 걸어 나가는 사소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기·고

역사의 애환이 양백(兩百)의 신(神)으로

소백산 밑 순흥에 있는 금성단(錦城壇) : 오른쪽 윗 단이 금성대군, 왼쪽이 순흥 부사 이보흥, 바로 앞에 있는 단이 단종복위를 꾀하다 희생된 여러 지사의 단이다.

북쪽 영월 단양
 사람들에게는
 단종이 남쪽 순흥,
 풍기 고을
 사람들에게는
 금성대군이
 아직도
 양백의 신(神)

한국인의 내재된 심성은 무엇일까.

백두산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아랫자락인 태백산줄기와 소백산줄기를 일컬어 양백(兩百)이라 한다. 그 양백의 산줄기로 발길을 옮겨 본다. 태백산과 소백산을 가르는 고개가 고치재이다. '고치재'란 산이 뿔죽이 돌출된 데서 비롯된 땅이름. 즉 곳(串)에서 간 이름이다. 「곳이재→고치재」로 된 것이다. 우리나라 황해안의 돌출부가 장산 '곶'(長山串)이고 동해안의 돌출부가 호미 '곶'(虎尾串)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고치재의 북쪽끝자락이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의 마락리이고 남쪽끝자락이 두레골(단곡리)이다.

이 마을은 비록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쌍둥이처럼 동일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조선왕조 초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의 조카 단종을 이곳 태백산 골짜기 영월로의 귀양을 보낸데서 비롯된 것이 단종복위운동! 그 중심에는 단종의 숙부뻘 되는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있었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아우이기도 했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의 왕위를 뺏는데 있어, 방해가 될 아우 금성대군을 포함하여,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게 하다가 1455년 뜻을 이루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이 곳 소백산 골짜기 순흥으로 유배시켰다. 그러니까 양백(태백, 소백산)을 사이에 두고 영월에는 단종이, 순흥에는 금성대군이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성대군은 이 곳 유배지에서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영천李씨)과 짜고 단종복위 운동을 꾀하였다. 이 때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격문(檄文)을 써서 몰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시녀와 관노에 의해 풍기 현감에게 알려졌고, 그것은 다시 곧 바로 세조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렇듯 단종복위운동이 사전에 알려져 금성대군과 이보흠부사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참하게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영월에 유배와 있던 단종도 사약을 받으니, 그의 나이 18세.



이흥환 동대문화원 이사

이런 역사사건으로, 양백의 고치재를 사이에 두고 북쪽 영월 단양 사람들에게는 단종이 남쪽 순흥, 풍기 고을 사람들에게는 금성대군이 아직도 양백의 신(神)으로 남아 있다. 물론, 충장공 보흠 선조도... 「순흥 - 두레골(단곡리) - 고치재 - 영월」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지도상에서 보면 거의 일직선으로 놓여있다. 그 선상에 단종과 금성대군이 양백의 신령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마락리는 고치재를 넘어 단양 쪽으로 한참 산길을 허위허위 가다가 보면, 마치 깨막지처럼 엮드려 있는 마을이 나타난다. 마락리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은 무척 바빠진다.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이란단다. 고치재 정상에 있는 서낭당에 매년 두 번씩 제사를 올리는 일이다. 수백 년 동안 빠짐없이 지내오는 행사란다.

이 서낭당에선 단종과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고 있다. 단종은 태백산 신령, 금성대군은 소백산 신령으로 받들어진다. 서낭당 앞엔 언제 누가 심었는지 모진 세월의 풍상을 이겨낸 늙은 돌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고개를 넘나들던 길손들이 배를 따먹으며 갈증을 해소한 뒤, 서낭당에 머리 숙여 절이라도 한 번 하고 가리는 배려이다. 서낭당은 지난날 민초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기대며 한풀이를 하던 곳이다. 그래서 나라 안 어디에서도 서낭제는 끈끈하게 이어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치재 반대편 순흥 쪽으로 넘으면 두레골(단곡리)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마락리와는 다르게 금성대군신만 모신다.

이렇게 마락리와 두레골의 서낭당에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단종과 단종의 숙부(금성대군)의 두 님을 기리는 곳이기도 무당들에겐 신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무당들이 무시로 이곳을 찾아와 신내림을 받으려 한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기에 늘 구천을 떠돌고 있어, 신(神)내림이 쉽다는 것이다.

두레골을 빠져나와 순흥 고을에 이르면, 금성대군이 유배 생활하던 위리안치터와 단종 다시 왕으로 복권되자 당시 순흥 부사 이명희(李明熙)와 그의 부인이 조정에 윤희를 얻어 마련한 금성단(錦城壇)이 있다. 금성단 정면에는 「제명조선 단종조 충신 금성대군성인 신단지비(齊明朝鮮端宗朝忠臣錦城大君聖人神壇之碑)」라 새겨진 높이 1.4m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금성단이 자리한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안정면 동촌리에는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참형을 당한 이 고을 사람들의 피가 끈끈하게 흘러내렸다고하여 '피끈이' 마을이 있다. 세월은 가고 역사는 말이 없다.

애들이 너희들이 다해라

스스로 살아가는 '아힘나평화학교' 이야기

아힘나의 소문은 들었다. 이곳은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나
아 이 들 라라는 것. 그래서인지 이곳에선 바깥의 어떤 법도 잘
이 야 기 통하지 않는다. 아니 그 법이 이 안에서 움직일 여유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내부에서 함께 결정하고 만든 법
 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공동체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
 하고 움직이는 것. 그 뿐이다. '대안학교' 라는 곳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고 더러 생각하기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곳에서는 제일 무서운 법
 이 있어 그럴 수 없다.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 얼마 전 아힘나
 내부에서 폭력사건이 있었다. 시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른 이 사안에 대
 해 아이들은 그 정황과 이유에 대해 당사자와 면밀히 이야기 나누고 서로
 논의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것이 이들의 방식이
 다. 모든 일이 아이들에게서 이루어진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똑같은 이곳
 의 일원일 뿐이다. 교사라고 해서 발언권을 더 갖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 학교의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이곳에서 결
 정된다. 시민총회는 아힘나의 일원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회의제도다. 사
 소한 안건이든, 앞서와 같은 중대한 안건이든 모두 이 회의를 통해 논의
 된다.



2

아힘나의 평화학교의 일상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니 이곳에도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생긴다. 그룹홈 시스템을 갖춘 이곳의 기숙형태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이곳에 와 기숙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에 그냥 옷을 벗어 쌓아 놓는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마찰이 있기도 했었다. 또 한번은 벼농사를 지으며 피를 뽑는데 그게 아무리 뽑아도 뽑아도 줄지 않더라. 나중에는 밭을 더해보았지만 결국 내버려 두는 '태평' 농사법으로 전환했던 것. 그렇게 태평세월 해를 받고 비를 받더니 감사하게도 그 벼가 여물어 밥을 지어먹을 수 있었다. 모두 굉장히 감사하며 먹었다는 후문이다. 밥을 먹다가도 밥상이 마뜩치 않으면 목재로 밥상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자유롭게 오고간다. 더욱이 한번은 한 친구가 연구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아직 번역도 되지 않은 일본 논문을 참조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동기 중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내용을 해석해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고 하니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 아힘나에서는 2002년부터 이들만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에 '힘나' 라는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돈을 버는 일도 쓰는 일도 아이들에게 맡겼다.



3



4



5

“다수의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기선언’ 일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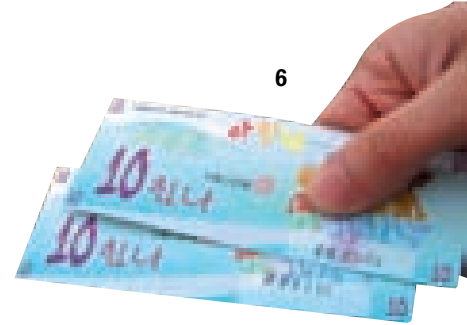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이들이 주체를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고 싶었어요.”



1. 아힘나 평화학교 전경
2.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회의 전경
3. 작업중인 아이
4. 스스로 모를 심는 아이
5. 이곳에서는 스스로 반찬을 덜어 식사를 한다
6. 이곳에서는 '힘나'라는 화폐가 통용된다

6



잃어버린 공동체성의 회복

이곳은 2005년 새터민 아이들 넷으로 시작된 곳이다. 사실 이 시작도 하나의 길로 가는 과정이었다.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1993년 시작된 기독교사회교육원을 그 시작으로 하여 1995년 장애통합교육센터인 푸른어린이학교, 1996년 방과 후 대안학교로서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1998년 건강한 교육과 생명문화를 생산하고 나누는 느티나무 교육문화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행보는 점점이 많은 점을 찍었다. 그런 점들이 흔적이 되고 또 잔영이 되어 2004년 구체적인 학교 구상과 논의로 아힘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길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주류가 되라고 강요하는 사회예요. 일류대를 나오고 성공하는 스토리가 주류인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이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애들은 극히 소수일 뿐이죠. 나머지는 그 일류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지만 결국 소외되고 희생당하기 마련입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기선언’ 일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이들이 주체를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고 싶었어요.”

김중수 이사는 아힘나의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교육의 첫째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자기선언이 될 때 아이들에게 주체가 생기고 실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아힘나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애쓰는 곳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지지해주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깥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자꾸 옆길로 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글썽,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아힘나의 일상처럼 모든 판단과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사 업 소 개

2 0 0 9

지 방 문 화 원 실 버 문 화 학 교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원의 역할은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경로당, 복지관 등 정부가 노년세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인의 여가활용, 문화생활은 국가 생활수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도농 간 수준차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는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노년세대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적극적 문화활동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국가차원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생산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인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늘리고, 세대간, 지역 간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올 한해 '실버문화학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이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는 단순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노년세대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적극적 문화활동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국가차원의 해법을 제시



실버문화학교 운영 현황과 2009년 운영 계획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고령화 시대 전국최대 규모 실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를 4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2005년 10개 원으로 출발한 실버문화학교 사업은 2006년 50개원, 2007년 76개원, 2008년 100개원으로 그 성과가 입증되어 2009년도에는 국고로 전환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올해 실버문화학교는 기존의 네가지 유형중 강연 형태의 사업을 지양하고 창의 기획형 사업을 신설, 전문가 참여를 통해 창의적 혁신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또한 부대사업으로 지역의 노인과 젊은층의 세대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구술사업을 전국 문화원 공동사업으로 기획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동 계획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실버문화학교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은

‘실버문화학교’는 기존 노인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계가 개발한 창의적 문화활동, 생산적 여가문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째 단계로, 문화교육을 받고, 두 번째 단계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실버세대를 지역문화의 리더 등 문화세대로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생비자(Prosumer)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활력을 잃을 수 있는 고령화 사회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며, 실버세대들에게도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제 2의 인생의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실버세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 간 소통,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지닌 문화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다.

정선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실버문화학교 담당
문의 _ 02)704-4332 www.silverang.org

야 생 초 이 야 기

찬바람 속에도 다시 생명은 태어나는지
길가에 푸릇푸릇한 기운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새싹들이 새 삶을 내딛고 있다.
바야흐로 봄이다.

차로 마실 수 있는 야생초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꽃이 핀다. 봄이 먼저인지 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반가운 손님임에는 틀림이 없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차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야생초들이 꽤 많다는 사실. 맛과 향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올 봄에는 야생초로 차를 한번 달여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봄이 오는 신호

세차게 몰아 불이던 바람도 제 몸을 낮추고 햇볕도 따사로운 것을 보니 봄은 봄인가보다. 지난 겨울은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평년보다 갑절은 더 추위가 기승을 부린 것 같다. 그 찬바람 속에도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지 길가에 푸릇푸릇한 기운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새싹들이 새 삶을 내딛고 있다. 바야흐로 봄이다.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만드는 봄이지만 우리네 옛 사람들은 봄에 특별히 먹을거리가 없어 산과 들에 나는 나물이나 야생초를 캐 먹으며 보리가 여무는 초여름까지 버티곤 했다. 지난 가을에 추수하고 쌓아놓은 곡식들은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면 겨울을 지내면서 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쑥, 냉이, 제비꽃 같이 정겨운 이름을 가진 야생초들로 죽을 쑤어먹거나 차를 끓여먹으며 어머니, 아버지들은 고단한 나날들을 달래곤 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야생초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고 병을 이기게 도와주는 등 알고 보면 효과 만점의 민간약인 경우도 많았다. 보릿고개는 진작 사라지고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야생초들은 지금도 산과 들에서 변함없이 만나 볼 수 있다.



매일 쑥차 한잔 어때요

쑥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들에서 자생하는 국화과의 다년생식물이다. 지금도 봄이 되면 소쿠리와 작은 칼을 하나씩 들고 들에 쑥을 캐러 나서는 아낙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민족과도 아주 친근한 야생초가 바로 쑥인데 단군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두 마리의 동물 중 호랑이는 그 쓴 맛을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곰은 끝까지 먹어 결국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단군신화에 나올 정도로 쑥이 우리 곁에서 자라온 것은 참으로 오래되었다 할 수 있으며 특유의 쓴맛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쑥은 너무 흔해서 별 볼일 없는 잡초처럼 여기기 쉬운데 예로부터 나쁜 것들을 쫓는 데에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쑥이다. 우리 조상들은 해마다 단오가 되면 궁중에서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이는 잡귀를 쫓아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에 쑥을 태워 모기와 같은 해충을 쫓아내기도 했다.

우리 몸에도 쑥만 한 것이 없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쑥을 사용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쑥을 잘게 찍�어 넣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피로회복, 신경통,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쑥은 지혈에도 쓰이는데 어릴 때 들이나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쑥을 뜯어 대고 있으면 곧 피가 멎었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쑥은 그냥 먹기에는 좀 쓰지만 쑥떡을 해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 특히 입맛을 잃기 쉬운 봄철에는 쑥을 넣은 된장국으로 입맛을 돋우면 좋다. 쑥은 쑥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며 편하게 먹기에 쑥차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체내의 독소를 잡아주는 제비꽃차

제비꽃은 제비가 돌아올 무렵에 꽃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른 봄 들판이나 개울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꽃은 꽃이 피는 풀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누구보다도 봄소식을 빨리 알려준다고 한다. 오랑캐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꽃의 뒷태가 오랑캐의 머리를 닮아서 그렇다고도 하고 제비꽃이 필 때쯤이면 북쪽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이른 봄에 제비꽃 새싹이 올라오면 어린잎은 나물로 먹는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먹거나 아니면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으로 먹기도 한다. 어린잎을 나물로 먹는다고 해서 외나물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비꽃은 차를 끓여 먹으면 좋는데 꽃을 따서 잘 말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 마시면 된다. 제비꽃은 체내의 독소와 균을 잡아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불면증이나 변비에도 좋다고 한다. 평소 밤에 잠을 잘 못자는 사람은 자기 전에 제비꽃차 한 잔 마시고 자면 어떨까.

소화불량에 좋은 냉이차

들이나 밭에서 자라는 냉이는 봄을 대표하는 야생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길을 가다보면 하얀 꽃에 송송송 줄기에 털이 난 식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냉이다. 지역에 따라 나쟁이, 나승개라고도 불리는데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길 때 잘게 뺏아서 죽을 쑤 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봄이 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보통 뿌리째 된장을 풀어놓은 국에 넣어 먹거나 무쳐 먹는다. 향이 산뜻해 시장에 냉이가 나와 있으면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냉이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먹어본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냉이에는 비타민 B와 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신통한 약이 없었던 예전에는 꽃이 피면 뿌리째 뽑아 말린 다음 차를 우려 마셨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냉이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쓴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제철에 많이 먹어두는 것이 어떨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눈이 침침할 때 냉이차를 한번 마셔보자.



성남문화원

제90주년,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제90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1일, 분당 율동공원 내 '성남3·1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의 '오리뜰 두레 農樂'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성남3·1운동 역사보고',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기념사와 이대엽 성남시장,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의 경축사가 이어졌으며, 헌시 '만세 터에 서서' (작사:한춘섭) 낭송과 '혼 풀이' (신미경 무용가)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과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치는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됐다.

한춘섭 원장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덕택으로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번영된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침체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없었다면 21세기 <번영의 시대>는 기약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90년 전, 외쳤던 그날의 함성과 그날 하나가 되었던 "우리 고장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성남문화원은 한백봉, 한순희, 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천여 명이 하나 되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분당구 율동에서 역사적인 만세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 기념공원 조성과 2006년 3월 1일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제막했으며, 매년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포천문화원

2009년 향토사연구위원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0일 향토사연구위원, 관계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향토사연구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문화는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고 이룩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값진 목표이며 또한 이상」이라고 말하고「우리 포천문화원에서도 이렇듯 아름답고 숭고한 문화의 꽃이 우리지역에서 그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매진해 나갈 것은 물론, 금년도 향토사연구사업 추진함에 있어 이석구 향토사연구소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향토사 연구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09년도 향토사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 2009년도 향토사 주요사업으로는 전통 민속 자료 발굴 복원, 『포천향토사료총람』 발간, 문화탐방 시티투어 및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향토사 바르게 알기경시대회 개최, 「1사1문화재 결연 운동」 활성화,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포천의 옛 사진> 수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의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향토 문화 정체성 확립 및 전통문화 발굴 전승을 통한 현대문화 발전 방향제고 등 한 단계 발전하는 문화원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문화원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28명 수료

내년부터는 평택시에 산재해있는 문화유산 및 관광지에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시민들과 평택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향토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평택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그 주인공들을 뽑는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이 지난 29일 평택시평생학습센터 교육장에서 수료식을 끝으로 8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평택시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이 주관한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식에는 이철순 평택시 총무국장과 김미영 평택문화원 부원장, 차송웅 평택향토사연구소장이 참석해 수료증을 수여하고, 2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은 지난 해 실시했던 ‘평택역사문화알림이 양성’ 과정 수료생과 일정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일반 시민의 경우 모집을 시작 후 1주일 만에 선발 시험 경쟁률이 2: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어, 문화유산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사상문화원

오카리나 연주회 작은 거위들의 합창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13개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이 2월 28일(토) 오후 6시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상문화원 오카리나 강사인 이정미 선생의 사회로 사상문화원의 소리향 앙상블이 '사랑하면 할수록' 'Top of the world' 을 연주했고 하늬소리 앙상블은 'Yesterday' '꿈의 대화' 등을 공연하여 350여명 관중의 뜨거운 환호성을 받으며 봄밤의 흥취를 돋우었다.



남양주문화원

남양주화도3·1독립만세운동 재현 횡보행진 및 기념식

지난 2월 28일(토)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와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월산교회, 동부변영회가 주최 주관하여 남양주 화도3·1독립만세운동 재현 횡보행진 및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 민족의 자각과 세계 속에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시킨 3·1독립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통하여 시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며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 하고자 하였다. 식전행사로 3.1절 퀴즈풀기, 삼일절삼행시경연대회, 무술시범 등이 있었으며 일본 독도 망언 규탄대회를 갖고 독립선언문낭독, 만세삼창 등을 하였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강원 지역에 식수 지원 손길 이어져

중부권문화원인 시흥,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수원, 광명, 화성, 김포, 부천, 오산문화원이 5톤 한 차 분량을 태백문화원에 기증했으며 수원문화원(원장 유병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 시민들에게 2백만원의 성금으로 마련한 생수를, 25일 사무국장 박철환 등이 태백문화원(원장 권영한)에 방문하여 식수 6.5톤을 전달했다.

울산지역 산하 5개 문화원(울주, 중구, 남구, 동구, 북구문화원)이 1문화원 당 400,000원 총 2,000,000원을 태백문화원에 송금하였다. 또한 청주문화원(원장 장현석)에서 2월 24일 청주시를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식수 1트럭분을 지원받아 태백문화원으로 전달하였다.



2009 제17차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3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2박3일 간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16개 시도지회 사무처장 및 223개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연수가 있었다. 초청특강, 사례발표(4개), 분임토의(1,2), 종합발표, 교류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서초문화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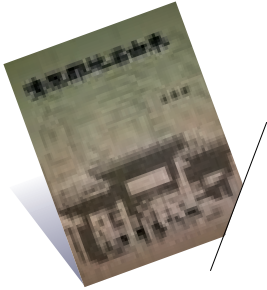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열림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서초문화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서초문화원 개원식을 3월 17일(화)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서울시 인가 및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서초구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할 서초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개원식은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축하공연은 '상설문화교실 감사와 구민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이라는 주제로 트럼펫교실의 김정덕 교수, 민요판소리 교실의 이정일 교수, 가곡교실의 손순남 교수, 행복노래교실의 이경애 강사, 서초구립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서초문화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서초문화원은 서초구민회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문화강좌실, 대강당 시설 등을 활용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지역문화행사 개최, 향토사의 조사 발굴 등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임한중 서초문화원장은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 서초의 문화발전을 선도할 서초문화원이 왕성한 활동으로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그 각오를 밝혔으며,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지방문화원이 가장 늦게 설립되지만 초대원장의 각오가 남달라서 서초문화원은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구도 서초문화원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초문화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에게 문화접촉의 기회를 넓혀주고 고유의 문화를 개발 보존하는 지역 문화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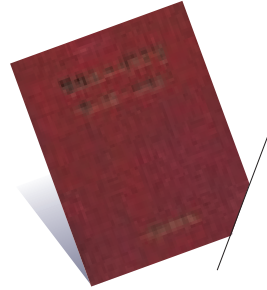
문의 _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전화 2155-6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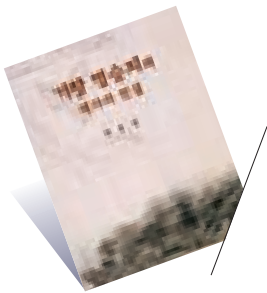
청원군 지명 유래
청원문화원 / 김진식

지명 속에는 세월을 거둬들이며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반영되어 불려오지 마련이다. 거기에는 역사와 함께 전설과 문화가 간직되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 경제의 개발은 땅의 변화 및 그 땅을 가리키는 지명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더러는 불리어 오던 지명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 또한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명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청원 문화원에서는 2읍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원군 전 지역의 지명과 그에 따른 유래나 전설을 모두 조사하고 정리한『청원군 지명 유래』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청원군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과 소지명에 대한 방대한 자료수집과 주민들의 제보, 그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검증된 자료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명에 대한 어원 또한 꼼꼼히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군의 지명 유래를 잘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비슷한 다른 지역의 지명 해석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명현들의 하동구경 _ 향토와 인물 · 시의 만남
하동문화원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생명력과 풍부한 정서의 함축은 정신적 여유를 누리게 해 주는 매력이 있다. 이 책에는 신라시대 최치원을 비롯하여 고려, 조선, 구한말 시대의 여러 문인들이 하동의 명산(名山), 명해(名海), 명강(名江)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는 하동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동반한 노래도 있어 심신을 보듬어 주는 시집이자 향토사적 가치가 높은 사료로서의 의의도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시와 더불어 소개되고 있는 문인에 대한 소개와 그와 관련된 하동 이야기도 시집의 재미를 더해준다. 우리는 '명현들의 하동구경'을 통해 지난 날 하동에 흔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과 그들이 하동에서 남긴 시문을 통해 숨어있던 하동의 진면목을 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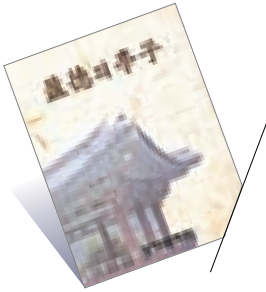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거창문화원 / 박종섭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는 마을 앞의 나무, 높고 낮은 산과 골짜기, 들뜬 등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삶을 헤쳐 온 생애에 대한 애착과 서러움, 그리고 정신을 담은 유물과 내일의 희망을 담고 있는 사연들이 있다. 이 책에는 용원정 자리바위의 전설을 비롯하여 서동과 선화공주와 관련된 취우령의 전설 등 거창의 수려한 명승지들의 역사와 전설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된 민요도 사이사이에 소개되어 민요 속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의식세계와 숨결 또한 느끼고 알 수 있다. 또한 10여 페이지의 컬러 화보와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들을 통해 거창의 풍광경미와 역사유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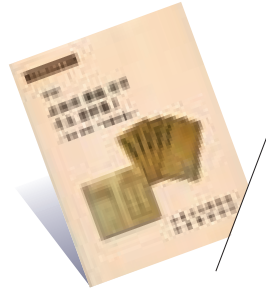
진주항일운동사
진주문화원

진주의 3.1 운동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 투쟁으로 약 2~3만명 전후의 군중이 집합하고 각계각층이 모두 동참한 의거였다. 『진주항일운동사』는 일제에 의해 소각되거나 6.25 전쟁으로 소실되어 부족한 항일병에 관한 자료를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 진주지역 또는 진주출신 항일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란 개인의 삶이 모여 지역사가 되고 국사가 된다. 따라서 본 도서는 정부포상 및 미포상 항일투사 212명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신간회와 여성 항일 운동 등 진주 지역의 주요 항일 운동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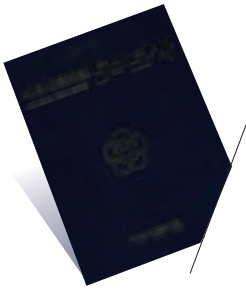
영덕의 정자
영덕문화원

「영덕의 정자」는 영덕군내에 산재해 있는 정자의 현재 모습을 정자별로 건립 연도와 건축구조 그리고 전경사진과 함께 정자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문을 수록, 정리하여 영덕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이다. 정자는 단순히 옛 조상들의 건축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정자의 건립배경과 정자에서 면학에 힘쓴 인물들의 삶을 되새겨보면,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역민속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유형 문화유산이지만 대체로 관리·보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책의 발간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정자에 대한 재조명과 세월의 풍랑에 훼손된 정자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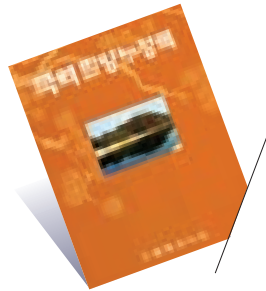
**〈수원학사료총서2〉
정조와 화성관련 주요 자료집 1**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지난날의 역사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일은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가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일 것이다. 2006년부터 지속된 수원학사료총서 발간작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수원학사료총서 2, 3권에는 정조(正祖)와 화성(華城)에 관한 주요 문헌을 해제하고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중 관련 내용을 총망라하여 국역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장영영, 건릉, 응릉, 화령전, 수원(화성)행궁, 수원부(화성부)유수 등의 내용을 항목별로 총 정리하여, 조선후기를 이해하는 주요 자료인 정조의 문집과 왕조실록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과물이 향후 정조와 화성연구를 심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본 사료총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우리나라 역사·문화와 지역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널리 읽히고 적극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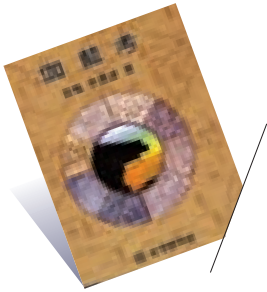
아우내문화원 50년사
아우내문화원

아우내문화원은 1958년 가천리에서 사설 백전 문화원으로 발족한 것이 천원문화원, 천안군문화원으로 불리어 오다가, 천안시·군이 통합되면서 아우내문화원(1995년)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향촌의 문화 및 향토사 조사·연구에 힘써왔다. 설립 50주년을 계기로 발간하게 된 이번 「아우내문화원 50년사」에는 '사진으로 보는 아우내문화원 50년사'와 아우내문화원에서 발간한 서적과 향토 연구 사료 등이 정리 되어 있으며,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유관순 열사 등 고장 인물들에 대한 사료도 담겨 있어 문화원의 발자취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집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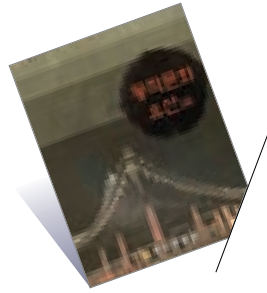
국역 밀양누정록
밀양문화원

누정의 기문은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실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밀양문화원에서는 1984년도에 「밀양누정록」을 발간하였으나 기문이 거의 한문으로 기록, 발간되어 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밀양문화원에서는 3년 계획으로 이를 국역 재 발간하기로 하였고, 자료수집과 번역, 문중별로 기문의 원문과 누정록에 기재된 기문을 대조하여 오·탈자를 바로 잡는 등의 작업을 거쳐 「국역 밀양누정록」이 발간되게 되었다.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선현들을 재조명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자료가 되기를 바래본다.



가람고
순창문화원

순창문화원에서 2008년 12월에 발간된 「가람고」는 순창이 낳은 지리학자 여암 신경준 선생이 1770년경에 저술한 「가람고」를 재조명하고 재 편찬한 것이다. 신경준의 「가람고」는 그 당시 전국에 있던 520여개의 사찰을 각 지방에 따라 소재하고 있는 산과 방향, 거리를 자세하게 수록하고 현황과 유래, 비, 금석물 등 단편적인 부분까지 기록한 책으로서 당대 불교의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본도서는 신경준 선생의 「가람고」 형식을 따라, 순창 소재의 사찰 및 사찰 터에 대한 일화를 사진과 지도와 함께 소개 하고 있으며, 신경준의 「가람고」 영인본 또한 수록하였다. 이번 출간을 통하여 여암 신경준의 「가람고」에 대한 재조명뿐만 아니라 순창 불교문화의 변천과정과 또 그 시대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작문화유산(4)
동작문화원

총 84페이지의 컬러인쇄로 이루어진 「동작문화유산(4)」는 동작구의 여러 문화유산들의 사진자료와 함께 유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있어, 보는 이들에게 문화유적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작구는 창업의 원성을 위해 대권을 아우루에게 넘긴 양녕의 지역사를 비롯해 충절의 표상인 사육신묘, 순국 선열을 모신 호국의 성역인 현충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역사적 인물의 보물급 신도비가 산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유산도 적지 않은 곳이다. 한편 책에서는 동작구 소재의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의 각종 유물과 노량진의 역사와 지역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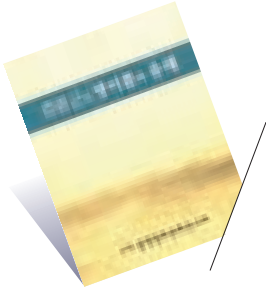
**당진 근현대 신문기사 자료집
(1890년대 ~ 1960년대)**
당진문화원 / 김남석

당진군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제1부 : 대한제국기(1898~1910)', '제2부 : 일제강점기(1910~1945)', '제3부 : 해방이후(1945~1960)'로 나누어 정리한 이 자료집은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며 당진군이 근, 현대사의 질곡 속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는지 한 눈에 읽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집의 신문기사 내용은 가급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어로 바꾸어 정리하였으며, 목차에는 신문명과 날짜, 제목으로 정리해 놓아 목차만으로도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말미에는 〈부록〉으로 '한말, 일제강점기의 신문연표'와 '한말, 일제 강점기의 국가연호'를 게재하여 자료집에 실린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논산 지역의 현판
논산문화원

현판(懸板)이란 글씨를 쓰거나 새겨서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 또는 벽이나 기둥 등에 걸어 놓는 널빤지를 말한다. 건물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현판은 건물의 격식에 어울리는 글씨와 장식을 더하여 아름답고 호화롭게 만들어져 새겨진 글씨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예적으로나 판재의 미술적 아름다움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현판은 논산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등 120여점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편액(扁額)과 건물의 역사나 유래를 기록한 기문(記文), 기둥에 새겨 걸어 놓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한 주련(柱聯) 등 현판의 모든 종류를 컬러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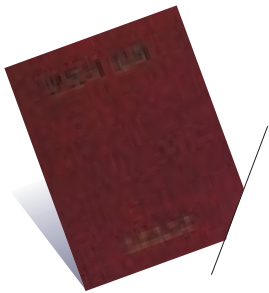
증평군의 땅이름과 유래
(사)증평향토 문화 연구회

마을이름과 땅의 이름은 그 지역의 지세와 역사, 풍속, 전통, 인물, 자연환경 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땅의 이름에서는 그 마을의 향토 고유의 투박하고 진솔한 문화의 맛과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땅의 이름을 통해 마을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로서 공동체적 일체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근력이 되기도 할 것이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번에 발간한 「증평군의 땅이름과 유래」는 마을의 전통과 유래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증평군 27개리의 법정리와 101개의 행정리에 있는 593개 땅의 이름에 대한 유래와 위치,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금석문
안양문화원

금속 또는 암석에 새긴 문자와 문장을 뜻하는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을 통칭하는 금석문(金石文)은 역사속의 문장가 명필들의 예술적 사료이자 학술자료의 귀중한 보고이다. 안양의 금석문은 아직까지 금문이 발견된 것은 없고 다수가 석문이며, 서울 및 지방의 유서 깊은 고도에 비해 양적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대적인 분포도나 석문의 다양한 현황을 보기에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책자에는 사적비와 신도비, 묘비, 부도비, 애각, 당간기, 공적비, 암각 등에 새겨진 글들의 원문과 풀이를 사진과 함께 정리하고 있다. 잊혀진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문화적 자료로 가치 있게 활용되는 살아있는 문화의 산물 금석문의 내용 정리를 통해 안양지역 선현들의 혼과 숨결이 전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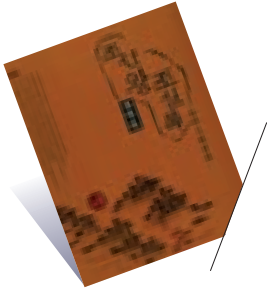
안동의 설화
안동문화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장인 퇴계 선생과 관련 된 일화를 비롯하여 물과 산, 나무와 바위 등 자연 속에 스며있는 이야기 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것을 안동문화원에서 「안동의 설화」란 이름으로 정리, 발간하였다. 그것들은 우스개라든지, 상상력을 키워준다든지, 권선징악의 일깨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들을 한 데 정리한 「안동의 설화」가 안동 사람들의 옛 모습을 찾는데 보탬이 되고, 더불어 안동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보다 풍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백이와 제니의 신나는 여행
송파문화원

송파문화원에서는 한성백제와 관련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백이와 제니의 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초등학생 백이와 백이의 초등학교 친구 제니가 등장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제니를 위해 백이가 서울의 요모조모를 다니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철기시대의 이르기까지의 서울을 소개해주고 있다. 또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 등 백제의 많은 역사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의 여러 역사 유적과 문화재, 한성백제의 역사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그림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정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본 책자의 구성은 터문화원에서도 눈여겨 볼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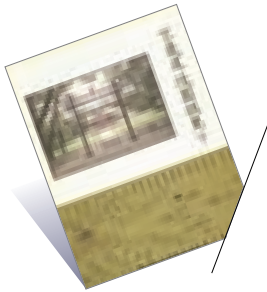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보성편
보성문화원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순종까지 27대 519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총 1967권 948책으로 되어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500여년의 정치, 외교, 경제 및, 문화, 풍속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방면의 사실을 망라하고 있는 귀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그동안 선조들이 남긴 사료를 수집하고 번역, 발간하는 사업을 해 온 보성문화원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성지역과 관련 된 부분을 발췌, 해석한 사료를 발간하였다. 보성 지역의 잊혀져간 역사와 지명들, 그리고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집인 「조선왕조실록 보성편」은 보성의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매우 유용한 사료가 될 것이다.



경기도 모심는 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벼농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예에 속하는 법씨가 출토된 것처럼 전통적으로 벼농사 중심의 고장이었다. 한 톨의 쌀을 거두어 맛있는 밥을 지어먹고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일손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단한 노동을 하면서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육체적인 고통을 덜기 위하여 일을 하면서 노래를 하였다. 하지만 삶의 형태의 발전은 이러한 다양한 향토 민요를 잊어 갔고 벼농사를 지으며 모심기를 할 때 불러졌던 “모심는 소리” 또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지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모심는 소리의 악보를 정리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권에는 가평군에서 여주군까지 20시군이 하권에서는 연천군에서 화성시까지 11개 시군 및 모심는소리의 민요 권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 능원 총람 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소재 왕릉 및 원묘, 그리고 경기도 이의 지역 소재 능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어져 그 성과물이 발간 되었다. 2007년에 발간된 상권에 이어 조선시대 전체 왕릉 및 원묘에 대한 자료정리 및 현지조사가 담긴 하권에는 상권에서 다루지 못한 김포시의 장릉(章陵), 여주군의 영릉(英陵), 영릉(寧陵), 화성시의 용릉(隆陵) 및 건릉(健陵) 등을 포함하였고 이의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능원을 모두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 출간이 갖는 의미는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기 왕릉 및 능원에 대한 총괄 정리에 있으며, 능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관련 유적 및 사료 조사를 모두 담고 있어 뜻 깊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도면 마을지 자료집
밀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

밀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밀양지(密陽誌) 또는 密陽마을誌 편찬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청도면을 선정하여 7,8십대 어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녹취, 정리하고 마을마다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을 되찾고자 「청도면 마을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청도면의 7개 법정리에 담긴 유래와 역사, 문화유적과 유물, 전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자료를 모으며 청도면 오고리 뒷산에 있던 마애불을 다시 찾은 일과 정월 대보름 당산제에 직접 참여하여 그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앞으로도 밀양문화원에서는 연차적으로 마을단위의 향토사 자료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첫 결과물로 나온 「청도면 마을지 자료집」은 더욱 뜻 깊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여성문인 II - 현대편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허난설헌, 황진이, 강정일당, 혜경궁홍씨, 홍랑 등 경기도가 배출한 여성문인을 엮어 2007년에 발간된 「경기도 여성문인 I - 고전편」에 이어 「경기도 여성문인 II - 현대편」이 발간되었다. 「경기도 여성문인 II - 현대편」에는 최초의 여성작가이자 여성화가인 열정의 작가 나혜석, 근대 여성작가의 선두주자였던 최정희,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시조시인 김오남, 한국문학의 큰 산 박완서,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지원, 김채원 자매 등 6인의 여성작가가 소개되고 있다. 책에는 작가의 생애뿐만 아니라 작품 변모,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삶의 공간적인 추이 양상인 문학적 관련성 등을 심고 있으며, 작가연보와 작품서지, 연구 문헌 목록 등을 첨부하고 있어 이들의 문학적 성과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거창의 무속
거창문화원 / 박종섭, 박성석

가야문화와 신라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지닌 거창군 소재의 거창문화원에서는 과거 수렵과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보존되고 의존해 왔던 무속신앙의 진혼을 찾아 그 실태를 고찰하는 작업을 하였다. 거창지역의 성황당(수호신)과 굿판놀이 등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대담 방식으로 구성된 무속인들의 소개는 그들의 조직형태와 생활상, 생각, 무속을 접한 계기 등을 담고 있어 무속자료의 기록과 보전이라는 의미 또한 크다. 이번에 발간된 「거창의 무속」이 '무속학회' 및 '한국사마니즘학회' 회원들 및 학자 등 한국 무속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지회장에 오용원(평택) 원장 선임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평면식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지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식전 공연행사로 평택농악보존회의 평택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한민국악예술단의 진도복춤, 중앙국악실내악단의 연주가 있었다. 임주연 방송인의 사회로 이취임식 본식이 진행되었다. 남산우 직전 지회장의 이임식이 진행된 후 오용원 신임지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오용원 신임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재도약의 기로에 선 지방문화원과 도지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 지방문화원의 권익을 찾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격려사와 송명호 평택시장과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축사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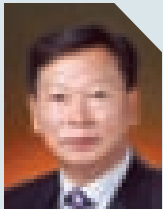
부산동래문화원장에 성원주 씨

성원주 동래문화원 부원장이 지난 20일 구청장, 구의원, 구의원, 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2009년 정기총회 및 제4대 문화원장 이·취임식'에서 동래문화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성 원장은 동래지역의 문화적 체질을 더욱 더 성숙한 발전으로 이끌 것을 다짐하며 동래지역의 문화 창달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성 원장은 동래구의 회 의장과 자유총연맹 동래구 지부장, 동래문화원 제1대-제3대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래구 온천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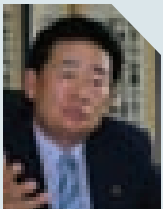
청원문화원장에 배금일 씨

2009년 3월 16일 청원문화원 제7대 문화원장에 배금일 씨가 취임하였다. 배금일 원장은 내수를 출신으로 청주상고와 청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내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청원군 의회 1,2대 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충북서예대전과, 전국단체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 충북 검도협회 이사로서 후진양성에도 기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배금일 원장은 2002년부터 문화원 이사로 참여하여, 2005년부터 부원장으로 활동하다 제7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배금일 원장은 "문화를 통하여 따듯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옥천문화원장에 심대보 씨

지난 2월 17일 옥천문화원장 선거에서 202명중 유효투표 179표(4표 무효)중 119표로 당선된 옥천문화원 심대보 씨는 취임사에서 어르신들의 고귀하고 소중한 연륜과 경험을 가지 있게 활용하고 또 배워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 튼실한 건물이 지어 지듯이 앞으로 진정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연구하고 서로 버팀목이 될 것을 당부했다. 심원장은 충청북도 관광 명예기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옥천예총 부회장을 역임했다.



박응진 충남지회장 충남문화예술포럼 회장 맡아

충남의 문화예술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반침대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8월 지역의 문화예술인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충남문화예술포럼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그 후 10월 충남도와 협의해 포럼 구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칭 충남문화예술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충남의 창조 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해 문화 비전을 정립하고 문화 다양성 및 창의성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단체에 박응진 충남지회장이 회장을 맡고 충남의 문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응진 충남지회장은 이직 걸음마 단계지만 충남문화예술포럼의 창립 취지와 목적에 걸맞도록 충남의 행정, 연구 기관, 문화예술단체를 연계하는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도민에게 충남문화예술포럼을 알리는데도 힘써서 기업체와 연계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동작문화원 강희일 원장 시인 등단

동작문화원 제3대 원장인 강희일 문화원장은 최근 월간 '문예운동' 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번엔 실린 시 5편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심표를 찍는 듯한 기분으로 짝이 날 때마다 습작을 거쳐 공을 들인 작품이다. 시인등단에 큰 도움을 준 선지조 교수는 추천의 글에서 "강희일 시인은 시를 쓰는데 큰 공을 들이는 분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삼아 좋은 시를 쓰게 될 사람이다."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그의 계획은 체계적인 시 창작공부에 더욱 정진함과 동시에 시적 상상력을 문화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동작문화원이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처가 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 1. 2월 21일 (토) 19:00
- 2. 2월 21일 (토) 20:00
- 3. 2월 21일 (토) 21:00
- 4. 2월 22일 (일) 19:00
- 5. 2월 22일 (일) 20:00
- 6. 2월 22일 (일) 21:00
- 7. 2월 23일 (월) 19:00
- 8. 2월 23일 (월) 20:00
- 9. 2월 23일 (월) 21:00
- 10. 2월 24일 (화) 19:00
- 11. 2월 24일 (화) 20:00
- 12. 2월 24일 (화) 21:00
- 13. 2월 25일 (수) 19:00
- 14. 2월 25일 (수) 20:00
- 15. 2월 25일 (수) 21:00
- 16. 2월 26일 (목) 19:00
- 17. 2월 26일 (목) 20:00
- 18. 2월 26일 (목) 21:00
- 19. 2월 27일 (금) 19:00
- 20. 2월 27일 (금) 20:00
- 21. 2월 27일 (금) 21:00
- 22. 2월 28일 (토) 19:00
- 23. 2월 28일 (토) 20:00
- 24. 2월 28일 (토) 21:00
- 25. 2월 29일 (일) 19:00
- 26. 2월 29일 (일) 20:00
- 27. 2월 29일 (일) 21:00

“문화로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다문화 국악유지협

러브인 Love in Asia
아시아

2009. 2.21(토) - 3. 29(일) 지역순회공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선전협회 소리나루

☎ 문의 02-481-1031(소리나루), 02-3704-9726(문화체육관광부)